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격제정

정보시스템표준과
02-509-7256

□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TC215(의료정보)에서 제정된 국제표준규격을 곧바로 도입하여 KS규격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의료계의 일반적 현상인 의료정보표준화의 인식 부족과 각병원간, 업무간 호환성 미비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는 물론 선진국과의 경쟁력에서도 크게 뒤져있는 의료정보분야에 우리의 앞선 IT기술을 접목하여 기술적 낙후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 서는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키로 하였다.

□ 현재 KS규격수는 금번에 제정된 규격 13종과 과거에 제정된 규격 5종을 합하면 총18종의 의료정보 관련 규격이 제정된 셈이며, 금년에 15종의 규격을 새로 제정기로 하였으며, 매년 계획을 세워 ISO/TC215(의료정보)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규격으로 채택된 규격은 곧바로 KS규격화할 예정이다

□ ISO/TC215(의료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분야로 분과위원회는 WG1부터 WG6까지 6개가 있으며, 금년 5월에 개최되는 베를린 총회에서 WG7, WG8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추가될 예정이며, 참고로 WG6인 Pharmacy &

Medication Business에 참여하고 있는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교수가 제안한 NP(New Work Item Proposal)문건 2종이 국제표준화 문건으로 받아들여져 정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확인코드(Identification code for medicinal product)에 대해서는 신현택교수가 Project Leader로써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또한 국제의장이며 경북대의대 교수인 박연식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무선보건의료정보포럼”(3개년 계획)에서는 기간이 단료되는 2005년에 의료정보와 관련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를 국제규격화하기로 하였으며, KS규격화도 같이 추진키로 하였다.

□ 현재 KS규격은 18종이나 금번에 제정된 13종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1) KS X ISO 11073-10101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의료장비 접속 및 통신표준-제10101부 :용어
- 2) KS X ISO 11073-10201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 통신-제10201부 :도메인



정보보호

- 3) KS X ISO 11073-20101 보건의료정보-현상진료용 의료장비 통신-제20101부:응용프로파일-기반표준
- 4) KS X ISO 11073-30200 보건의료정보-현상진료용 의료장비 통신-제30200부:전송프로파일-IFDA연격기반
- 5) KS X ISO 11073-30300 보건의료정보-현상진료용 의료장비 통신-제30300:전송프로파일-IFDA기반-적외선부전
- 6) KS X ISO 17113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시스템들 사이의 정보 교환-메세지들의 개방
- 7) KS X ISO 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시험표준
- 8) KS X ISO 18308 보건의료정보-전자평생 건강 진료기록 아키텍처 요구사항
- 9) KS X ISO 21549-1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1부:일반구조
- 10) KS X ISO 21549-2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2부:공동객체
- 11) KS X ISO 21549-3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3부:속소 임상데이터
- 12) KS X ISO 21667 보건의료 정보-건강시표 개념
- 13) KS X ISO 22857 보건의료정보-개인건강정보의 국가간 통신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표준**

